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분석*

박에스더** · 유순화*** · 정애리****

초 목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사용하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Q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다문화 학교 교사, 교육학 교수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36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인 P표본은 11~20세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3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QMethod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은 1) 가족 의존적 적응형, 2) 능동적 적응형, 3) 회피적 갈등형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 1유형에 속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응하고 있었다. 제 2유형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족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른 유형에 비해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으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 3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었으며, 가족 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돕고 이들의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족관계 유형, Q방법론

* 본 논문은 박에스더(2016)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신저자, shyoo@pusan.ac.kr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I. 서 론

우리나라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밝힌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4,878명으로 2016년 7월 말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총 인구의 3.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006년의 910,149명과 비교하여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16). 이 중 다수가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한 경우이다. 현재 국제결혼 건수는 21,274건으로 전체 혼인 중 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5).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약 82만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성가족부, 2015).

국제결혼가정은 가족이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들은 결혼 시작에서부터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경우보다 각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결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하성, 2009).

최근에는 이혼, 사별 등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룬 국제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제재혼가정은 다문화 가정과 재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즉,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부관계의 형성, 초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편입, 재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나타낸다(송민경, 2014; 엄명용, 2013).

그들의 자녀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으로 불리는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이들은 국내 출생의 국제결혼자녀와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본국에서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뒤 어머니의 한국행으로 또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류방란, 오성배, 2012; 엄명용, 2013). 이후 이들도 한국으로 오는데,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오게 됨으로써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이병철, 송다영, 2011).

이러한 복잡한 가정사와 불안정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이들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낀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까지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

득하다가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2011). 이들은 미숙한 한국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본국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등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게 된다(이병철, 송다영, 201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가족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다(엄명용, 2013).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는 새로운 부부관계에 익숙해져야 함은 물론 전혼자녀의 부모역할까지 해야 한다(송민경, 2014; Visher & Visher, 1996). 또한 아내와 새 자녀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생업을 감당하면서 이들을 직접 돌보고 챙겨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엄명용, 2013).

어머니의 경우 자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만에 자녀와 재회함으로써 자녀에게 심리적 거리를 느끼며, 재혼 즉시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 경우에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김혜경 등, 2006; 엄명용, 2013). 이들은 초혼 때와는 다른 부부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부부관계에 긴장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송민경, 2014; 최지영, 2009). 가족 간의 화합과 융화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가족 간에 대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늦은 귀가로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기에 이들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다문화 정책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왔다(김기덕, 박민서, 2009; 김희경, 2011; 박주희, 남지숙, 2010; 이덕희, 2010).

최근 들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연구는 첫째,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 연구(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양계민, 조혜영, 2011, 전경숙, 이

의정, 2012), 둘째, 학교생활 및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이병철, 송다영, 2011; 류방란 등, 2011), 셋째, 심리·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엄명용, 2013; 좌동훈, 201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재혼경험을 한 결혼이민여성(송민경, 2014; 장인실, 서덕희, 이지현, 2012),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민경, 201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을 지목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새로 편입된 가족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육 기회 획득과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다(엄명용, 2013). 실태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이 입국 이전의 힘든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정 문제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와 관련하여 전경숙과 이의정(2012)은 불안정한 가족관계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지지와 부모요인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각자의 특성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더욱 초점을 둔다(방희정, 조아미, 2003). Olson, Russel과 Sprenkle(1983)은 가족체계 요소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체계의 전체성을 이루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서 가족체계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가족체계의 기능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당면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의미한다.

Olson과 그의 동료들(Olson, Portner, & Lavee, 1985)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III를 개발하여 가족관계와 기능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문헌과 다양한 가족관련 척도를 고찰하여 양옥경(2001)이 가족관계척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양옥경의 가족관계척도는 가족체계 내의 관계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척도들은 본 연구에서 진술문을 확보할 때에도 참고되었다.

가족관계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환경과 분위기,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Q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대상자들의 심리 내적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론검증에 효과적이며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적절하다. Q방법론은 측정도구나 척도 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방법과는 달리, 어떤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반응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상성이 높은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김경은, 200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은 국제결혼과 재혼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척도를 사용하는 양적방법보다 응답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Q방법론을 통해 이들 가족의 주관적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자료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방 법

1. Q표본 선정

Q모집단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대상개념에 대하여 대상자들 각자의 주관적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진술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김홍규, 1990). 진술문 구성을 위해 먼저 다문화 및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추출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된 척도를 참고하였다(양계민, 조혜영, 2011; 양옥경, 2001; 양옥경, 이민영, 2003).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술문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 구성요인을 정서친밀관계, 인정책임관계, 수용 및 존중관계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검토에 따라 구성된 구성요인에 의거하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진술문 93문항을 1차적으로 확보하였고, 2차로 다문화청소년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와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75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75개 진술문으로 다문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이들 가족관계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53개의 진술문을 Q모집단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Q표본 선정을 위해 교육학 교수 1인, 상담전공 박사 2인,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3인, 다문화 학교 교사 1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중복여부와 의미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진술문을 수정한 결과 표 1과 같이 36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이때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진술문을 함께 제작하였다.

표 1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문항번호	진술문
1	우리 가족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2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3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4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5	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알지만 아버지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6	가족과 대화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7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8	내가 한국말을 잘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9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0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11	한국의 가족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12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13	아버지는 가족을 잘 챙기신다
14	우리 가족은 기분이 나쁘면 다른 가족에게 화를 낸다
15	우리 가족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16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 공부, 진로, 취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17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가족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18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한다
19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
20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21	집에 있으면 집안일을 해야 하고 동생을 돌봐야 해서 힘들다
22	새로운 가족이 된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고 서로 잘 챙겨준다
23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24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 불안하다
25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신다
26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가족에게 더 잘해준다
27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친해지기 어렵다
28	형제, 자매와 잘 지내고 싶지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29	엄마가 한국에 먼저 가고 내가 본국에 남아있었던 때의 기억은 나에게 좋지 않게 남아있다
30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31	가족들끼리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
32	부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잘 모른다
33	내가 없다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것이다
34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
35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36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2. P표본 선정

본 연구의 P표본은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다가 외국인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함으로써 한국에 오게 된 청소년이다.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P표본으로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 1곳, 다문화 대안학교 2곳, 일반학교 1곳, 다문화청소년상담기관 1곳을 통해 11~20세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3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은 입학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잠시 대안학교에 있다가 일반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일반학교에 원적을 두고 위탁교육을 받는 등 전출과 전입으로 인한 유동성이 많으며, 비자문제로 본국에 갔다가 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2015년 2월부터 5월 까지 다문화청소년상담기관과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를 하면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3. Q표본의 분류

Q표본의 분류를 위해 36개의 진술문과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된 Q분류 분포도를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진술문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정상분포가 되도록 강제 배열하도록 하였다. Q분류가 끝난 후에는 개별면담을 통해 각 카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과 이유, 일반적인 특성, 가족관계 양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어가 미숙하였기에 연구자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들의 모국어로 만들어 서면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4. 자료 분석

Q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Q표본 분포도에서 각각의 진술문이 놓인 위치에 따라 점수화하여 코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PQMethod 2.3 버전을 사용하였다(Schmolck, 2014).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인자가중치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내용상의 구별이 분명하고 요인 간 상관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유형 간의 상관관계와 진술문의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 과

1. 유형의 분류

분석 결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은 3개로 구분되었다. 연구대상자 33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16명, 제 2유형은 7명, 제 3유형은 7명으로 나타났으며, 3명은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았다.

유형별 인자가중치는 표 2와 같이 각각 8.79, 2.63, 2.45로 나타났다. 인자가중치는 유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이상이 되면 유형의 추출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변량을 살펴보면, 제 1유형은 22%, 제 2유형은 12%, 제 3유형은 9%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43%를 설명하고 있었다. 전체 누적 변량이 40%이상이면 의미가 있고 50%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박경수, 2005).

표 2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인자가중치	8.79	2.63	2.45
변량	22	12	9
누적 변량	22	34	43
Q표본의 수	16	7	7

표 3에 의하면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은 .25,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22로 유형간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41의 경우, 약한 상관으로서 어느 정도 상관은 있으나 한 유형으로 보기에는 낮은 상관으로 보인다(노형진, 유자양, 2016). 김홍규(2008)에 의하면 Q방법에서는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유형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

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1유형	-	.41	.25
제 2유형	-	-	.22
제 3유형	-	-	-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인자가중치와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출생국가는 중국이 66.7%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63.3%는 부산, 30%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중후반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70%는 한국에 거주한지 2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P표본의 인자가중치 및 일반적 특성

유형	P표본	인자가중치	나이	성별	출생국가	입국년도	거주기간	거주지
	3	0.70	20	남	중국	2011	4년	부산
	6	0.66	20	남	중국	2012	3년	부산
	7	0.66	16	남	우즈베키스탄	2014	1년	부산
	8	0.69	18	남	중국	2012	3년	부산
1	9	0.57	18	남	우즈베키스탄	2014	1년	부산
	11	0.41	19	남	중국	2014	1년	부산
	14	0.56	20	여	중국	2015	1년 미만	창원
	15	0.62	16	여	우즈베키스탄	2014	1년	부산
	16	0.61	17	남	중국	2015	1년 미만	부산

유형	P표본	인자기중치	나이	성별	출생국가	입국년도	거주기간	거주지
	20	0.79	14	남	러시아	2014	1년	부산
	22	0.69	14	여	중국	2014	1년	부산
	27	0.61	15	남	중국	2015	1년 미만	파주
	28	0.53	19	남	파키스탄	2015	1년 미만	파주
	30	0.70	14	여	에맨	2014	1년	파주
	31	0.73	16	여	에맨	2014	1년	파주
	33	0.45	17	남	중국	2015	1년 미만	파주
2	4	-0.35	11	여	중국	2013	2년	부산
	5	-0.55	12	남	우즈베키스탄	2010	5년	부산
	10	0.61	16	남	중국	2014	1년	부산
	13	0.76	17	여	중국	2013	2년	부산
	18	0.69	20	남	중국	2011	4년	김해
	21	-0.50	19	여	중국	2012	3년	부산
	29	0.53	18	남	중국	2014	1년	파주
3	12	0.45	15	여	중국	2009	6년	부산
	17	0.51	20	여	중국	2012	3년	부산
	19	0.42	14	남	중국	2014	1년	부산
	23	0.40	18	남	중국	2010	5년	파주
	24	0.56	18	남	중국	2015	1년 미만	부산
	25	0.40	15	남	필리핀	2014	1년	파주
	26	0.67	16	남	필리핀	2014	1년	파주

2. 유형별 특성분석

1) 제 1유형: 가족 의존적 적응형

제 1유형에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입국함으로써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체 연구대상자 33명 중 16명이 이 유형에 해당되어 가장 많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의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1.00이상이 됨으로써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이는 문항과 표준점수 -1.00이하의 강

한 부정을 보이는 문항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진술문에 강한 긍정을 표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등의 문항에 강하게 부정하였다.

제 1유형이 다른 유형과는 구별되게 반응한 진술문의 경우, 표 5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비교적 새로운 가족관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두드러진다.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표 5

제 1유형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7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1.85
2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1.72
3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1.44
20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1.43
16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 공부, 진로, 취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1.36
19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	1.19
8	내가 한국말을 잘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1.15
13	아버지는 가족을 잘 챙기신다	1.05
10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1.09
15	우리 가족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1.45
14	우리 가족은 기분이 나쁘면 다른 가족에게 화를 낸다	-1.73
9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81
4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1.97

제 1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해당 청소년들과 개별 면담을 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가정 내에서 특별한 갈등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

전반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면담 중 관찰한 얼굴표정과 말투, 생활태도에서도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족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탓에 자신의 깊은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로의 눈빛이나 얼굴표정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은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빠가 하는 말 못 알아듣지만 몸짓으로 거의 다 알아요(P8)”

“한국말 어려워서 서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하지만 한국어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P31)”

제1유형의 경우 부모 간,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좋고, 새로 형성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어려운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새아버지와 잘 지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만족시켜줘요(P16)”

“우리 가족 세 명이에요. 아빠가 새 아빠이지만 너무 좋아요. 잘해줘서 사랑해요. 아빠와 관계가 좋으니까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P22)”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오래 전에 헤어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다. 어머니와 재회한 잠시 동안은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로 인해 또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엄마와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어요. 자주 통화하지만 보고 싶어요(P8)”

“이모 집,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8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외롭고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엄마는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P6)”

이들은 타 유형에 비해 어머니의 재혼으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을 더 힘겹게 느꼈으며, 어머니와 재회하면 정서적 소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이는 제 1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2) 제 2유형: 능동적 적응형

제 2유형에 해당되는 7명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가족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은 표 6과 같다. 2유형의 청소년들은 ‘내가 한국말을 잘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 공부, 진로, 취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등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었고, ‘내가 없다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것이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등에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표 6

제 2유형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8	내가 한국말을 잘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2.48
16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 공부, 진로, 취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1.53
3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1.42
25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신다	1.33
17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가족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1.24
23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1.09
4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1.03
31	가족들끼리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	-1.08
34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을 생각해봤을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	-1.31
10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1.42
35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1.84
33	내가 없다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것이다	-1.96

이를 중심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결과, 제 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새로운 가족과 결합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불안의 과정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제 1유형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으며,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처음 한국 왔을 때 집에서 인터넷 게임하고 밖에 안 나가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친구 많아요. 학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하기만 해요. 저는 빨리 학교에 가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애들보다 한국어 좀 더 빨리 배웠고 혼자서도 여기 저기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P13)”

“혼자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부산, 대구, 경주, 포항에 가봤어요. 한국말 못 해도 중국어로 다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P18)”

“중국에서는 대학 가기 어려워요.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쉽게 대학갈 수 있어요. 만약 한국에서 대학을 못가면 중국으로 돌아 가야돼요. 한국에서 대학을 가게 되면 나중에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기술 같은 건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P21)”

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가족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은 한국어 능력이다. 이들은 가족관계에서 한국어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 크며, 부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관계가 좋지 않아요(P13)”

“단기간에 한국 적응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빨리 빨리 해내기를 원하면 더

힘들게 느껴져요.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빨리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반대예요.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P21)”

두 번째 요건은 가정의 경제력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급받고 실질적으로 윤택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것 사줄 수 있어요(P10)”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다. 제 2유형의 청소년이 강하게 긍정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이들의 부모가 자녀의 일상이나 학업에 관심을 많이 가짐을 알 수 있다. 개별면접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학교나 학원을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한국생활을 돕는데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관심은 입국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생각이 자녀의 가치와 차이가 날 때 갈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님과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하러 가시니까 시간 없어요. 이야기 조금하면 공부얘기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못 들어오게 해요(P10)”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 해요.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 배우면 잘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하기 싫어요(P1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빠, 엄마와 여기 저기 다녀서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때로는 화가 나요(P21)”

이를 통해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가족과 대화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진술문은 실제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 간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대화 시 일방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제 3유형: 회피적 갈등형

제 3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7명의 경우,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다른 유형의 가족관계가 대체로 원만하였던 것에 반해 이들은 가족 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에 안도하였다. 제 3유형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은 표 7과 같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는 진술문에 가장 강한 긍정을 나타냈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등에도 강하게 긍정하였다. 반면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우리 가족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등에 강한 부정을 보였다.

표 7

제 3유형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7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2.46
1	우리 가족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1.42
10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1.40
9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32
34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을 생각해봤을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	-1.04
6	가족과 대화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1.25
3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1.66
15	우리 가족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1.84
4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	-2.08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을 표하였지만 동시

에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도 긍정하였다는 점과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진술문에 대해 부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보다, 새로운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과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주시지만 친부 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이 익숙하지 않아요(P25)”

“부모님이 잘해주시기는 하지만 집에 가면 너무 불편해요. 오히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편해요.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P17)”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게 된다’는 진술문에 강한 부정을 보였으나 ‘우리 가족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는 진술문에는 강한 긍정을 보인 점과 관련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부부 간에 불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가 사소한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들은 그 때마다 불안과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1~2번 정도 싸워요. 저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밖에서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 이후로 아빠가 화를 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면 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P23)”

“부모님이 사소한 이유로 싸워요. 엄마가 아빠 옷을 사왔는데 이런 걸 왜 사왔냐고 그래요. 엄마가 무언가를 사올 때마다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화내요(P12)”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가족 간의 애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자관계에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한 번 버림받았어요. 지금의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시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P17)”

“엄마가 야단칠 때 굉장히 우울해요. 나를 위해서 야단을 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를 위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P19)”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진술문을 살펴보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1, 2유형에 비해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였다. 이는 가족요인 때문이기보다는 한국이 모국보다 더 안전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주는 만족감이 큰 까닭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상한 사람 많아요. 엄마가 외출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람 많은 곳에 못 가게 했어요. 한국은 위험하지 않아요(P12)”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해요. 날씨가 조금 춥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좋아요(P19)”

제 3유형의 가정은 가족원 모두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소 회피적이며 순응적이다. 이는 현재의 가족이 없으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가족문제 외에는 한국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제 3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중 가족관계에서 오는 불안정과 위축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자취를 하거나 친척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IV. 논 의

분석 결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은 가족 의존적 적응형, 능동적 적응형, 회피적 갈등형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제 1유형인 ‘가족 의존적 적응형’은 전체 연구대상자 33명 중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국내 거주 기간이 짧으며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의 낙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1유형의 경우 새로운 가족의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

에 아직 응집성은 약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제 1유형의 청소년들이 강하게 긍정적인 진술문으로 미루어 볼 때,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의미하는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의 가족형성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였다는 본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정에서 어두운 현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며, 이들 가정의 적응적인 측면을 보고한 엄명용(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초기 관계 형성이 긍정적이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초기 가족형성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가족경험을 보고한 연구들(양계민, 조혜영, 2011; 정희정, 김소연, 2014; 한은진, 2012)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가 가족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서 핵심적인 가족자원이 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한다(송민경, 2014; 양계민, 조혜영, 2012; 엄명용, 2013).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자신과 그의 어머니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들은 개별 면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아버지와 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새아버지가 아내의 전혼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며 자녀를 보살피는 것은 송민경(2015)이 밝힌 바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편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은 필요한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함은 느끼지 못했으나, 정서적 측면에서는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본국에서의 가정해체 경험과 한국 입국 후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가족에 편입되는 초기 과정에 있고,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언어사용을 비롯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족에게 의존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았고, 어머니와의 경계가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또한 한국으로 오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오랜 별거생활 때문에 서로에게 어색함과 낯설음을 느꼈으며, 맞벌이를 하는 부모로 인해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 1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실제 기대하는 바 역시 가족관계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박봉수 등(2013)의 연구에서도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유년기에 부모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안정된 정서가 결핍되어 있으며, 부모에게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 2유형에 속하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7명은 ‘능동적 적응형’으로, 비교적 한국사회와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과 개별면접으로 미루어 볼 때 가족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인 가족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맞벌이와 실제 제공해줄 수 있는 도움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제 2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가족관계의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능동성을 나타내었다.

이들이 제시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요인은 한국어 능력이다. 이들은 실제 가정 내 생활에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입국초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한국어이며, 가족 간에도 낮은 한국어 수준 때문에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전경숙, 이의정, 2012; Protocky-Tripodi, 2006; Yeh & Inose, 2002). 한광훈과 박봉수(2012)의 연구에서는 언어의 유창성을 문화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보고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가정의 경제력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주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가족이 기능적인 적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로 많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정은, 2012; 전경숙, 이의정, 2012).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상황이나 자녀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이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Duncan & Brooks-Gunn, 1997; McLoyd, 1998).

마지막으로 제 2유형의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부모가 일상생활이나 학업 및 진로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정서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부모역할을 수행해주시길 원하였다(박봉수 등, 2013).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 언어와 사회문화, 정서 등을 습득하게 되지만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입국 이후 재사회화를 겪게 된다. 이처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출생의 다문화 청소년 가정과는 다른 적응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부모 역할 역시 다르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가 낮은 사회와 가정환경에서 오는 소외나 긴장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가족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바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지지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부모가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때 심리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정희정, 김소연, 2014).

제 3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모두 7명이며 ‘회피적 갈등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 유형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응집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 제 3유형의 청소년들이 강한 긍정과 부정을 보인 진술문과 개별 면접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가정의 표면적인 관계는 긍정적이나 실제로는 정서적 소통과 교감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경숙과 이의정(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들은 친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복남(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새로 형성된 가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가족응집성이 낮은 데에는 개별면접을 통해 확인된 부부 간의 불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한은진(2012)의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모국에는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고, 교육적·문화적 혜택이 적은 모국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3유형은 입국시기가 2009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유년기에 입국 하였으나 가정불화로 모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에 재입국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국내 거주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지만 계속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한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가족생활 적응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관계 자원이 입국초기에는 청소년의 적응을 전반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국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가족관계 자원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은 국제재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으로서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재결합 과정에서 서로 간의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낯설고 어색한 새 가족과 화합을 이루면서 상호 조정과 갈등을 겪게 된다(한은진, 2012). 국제 재혼가정의 경우 새로운 자녀가 편입되면서 가족의 경계를 재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때로는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한은진, 2012; Fine & Kurdek, 1992). 따라서 특히 입국초기에는 가족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이들 가정이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가족갈등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인과 다름없는 문화적응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낯선 사회에 익숙해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적응과정 동안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가족결속력을 다져나가야 한다. 실제로 부모는 가정의 경계를 책임져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정에서 가족구조 및 체계를 재구축해야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에게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족 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의

자원을 통해 교육 및 가족상담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가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유형별 지원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유형은 새로운 가정환경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족 간 친밀감과 정서적 돌봄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가족 활동을 통해 가정의 안정과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응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에 소원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류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극대화하여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 2유형의 경우 이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해 제시한 요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울 수 있다. 이들은 보다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부모와 자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과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부모교육이 더해진다면 자녀의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다 실제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제 1유형이 가족관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 지원을 중요시한 것에 비해 제 2유형은 실제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이나 경제적 상황의 향상을 위한 지원,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실제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들은 제 2유형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으로 인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 3유형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족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친밀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족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담 지원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공고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순응하면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어려움을 유지·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으로서 가지는 공통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이들과 동일하게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으로 입국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지집단을 만들어 함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정착하여 현재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관계에서도 원활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이들의 멘토로 연결한다면 더욱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가족관계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어려움을 돕고 이들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필요한 도움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Q방법론은 정해진 표집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유형도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양적연구 등을 통해 반복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유형이나 특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6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2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적응 및 변화과정을 규명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이후 종단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자는 출생 국가, 나이, 경제적 상황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출생국가, 입국시기,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가 실시된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Q방법론에서는 유형을 구별하고 유형 간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은 (2009).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태도: Q방법론적 접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덕, 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외 (2006). **가족복지론**. 고양: 공동체.
- 김홍규 (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홍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경 (2011).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형진, 유자양 (2016). **SPSS 및 EXCEL을 활용한 다변량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지필미디어.
-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경수 (2005).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 관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129-152.
-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 법무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08&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에서 2016년 9월 3일 인출

- 송민경 (2014). 중도입국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재혼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35-64.
- 송민경 (2015). **유자녀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119-147.
- 양옥경, 이민영 (2003).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5-33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4, 39-82.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idx=696898에서 2016년 9월 3일 인출
- 오정은 (2012). **고양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경기도: IOM 이민정책연구원.
- 우복남 (2014).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현황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장인실, 서덕희, 이지현 (2012). 재혼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43-175.
- 전경숙, 이의정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하성 (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다시 보는 다문화청소년, 올바른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다**.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225-254.
- 통계청 (2015). **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vw_cd=MT_ZTITLE&list_id=A23_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9월 3일 인출
- 한광훈, 박봉수 (2012). 국내 유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증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도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1(1), 157-179.
- 한은진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경험을 통한 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Duncan, G. I., & Brooks-Gunn, J. B. (1997). Poor family, poor outcomes: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Fine, M. A., & Kurdek, L. A. (1992).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2(2), 185-204.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otocky-Tripodi,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perceived health of children of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8(1), 11-18.
- Schmolck, P. (2014). *PQMethod download page for windows users*. <http://schmolck.userweb.mwn.de/qmethod/downpqwin.htm>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 Visher, E., & Visher, J. (1996). Stepparenting: Blending family. In H. I. McCubbin, & C. R. Figley (Eds.),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 Yeh., C. J., & Inose, M. (2002).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mmigrant students. *Adolescence*, 37, 69-82.

ABSTRACT

Q-methodology analysis on family relation types amongst immigrant youth

Park, Esther* · Yoo, Soonhwa** · Chung, Aer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mily relation types amongst immigrant youth making use of Q methodology. Thirty-six Q statements representing the famili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youth were drawn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immigrant youths, multicultural youth counselors, multicultural school teachers, and professors majoring in educat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33 immigrant youths, aged from 11 to 20 years old. This study analyzed data by means of the PQ Method. The result of our Q analysis produced three types of family relation types: 1) the type of family-dependent adaptation, 2) the type of active adaptation, 3) the type of avoidant conflict. The immigrant youths belonging to type 1 were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with assistance from their family because they had only been resident for a relatively short time in Korea. The immigrant youths belonging to type 2 were living a relatively stable life with their family. They proved to be adaptable persons and revealed independent and progressive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type 3, their family relationships were not satisfactory, but in fact stagnant. Additionally, they felt the presence of conflict within their families. This study analyzed various phenomenon and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part of the immigrant youths regarding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suggested more appropriate supportive directions, according to each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 Pusan National University, Hyowon Counseling Center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shyoo@pusan.ac.kr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used as baseline data for helping to resolve the family problems encountered by immigrant youths and to assist in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Key Words: immigrant youths, family relation type, Q-methodology

투고일: 2016. 9. 5, 심사일: 2016. 12. 6, 심사완료일: 2016. 12. 12